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쨌든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 삼세를 둘 아니게 보고 공굴리는 도리

오늘 여러분과 한자리를 하게 되니 새삼 기쁩니다. 눈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조심하셔야죠. 어른, 아이 모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눈 온 거 보니까 어떡합니까? 눈이 딱 뭉쳐서 함박꽃이 희게 피고, 전후사를 다 덮었으니 뽀족한 게 안보이죠. 억울한 것도 보이지 않고 약초도 보이지 않고 선훈도 보이지 않고, 공부하는 분들이 가끔 나와서 온 산에 눈 온 것을 볼 때 이렇게 덮었으니 약초, 독초나 나쁜 초식이 없고 이젠 공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연줄이란 그게 아니라 알면 이는 대로 붙들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 내면에서 공 마당을 만들어야 할 테니까요. 공이 있어야 공을 치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귀신 방귀 씨를 얻었느냐고요. 귀신 방귀 씨를 얻지 못하면 공을 칠 수가 없거든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개개인이 못 낫든 잘 낫든 다 가졌습니다. 이거는 누가 억울하고 누가 덜 주고 더 주고도 없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한 치도 움죽거리 수가 없죠. 그래서 예너지 주장자라고도 하고 자불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왜 자꾸 하느냐. 거기에 미묘한 무엇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거수 일투족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신계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마음이 들 아니게 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했듯이 죽어야 나를 본다. 이런 말을 했죠. 완전히 보려면 세 번 죽어야 나를 본다 그죠. 그러니까 눈이 덮이면 아주 깨끗하죠. 조금이라도 남득이 돼서 마당을 골라서 공 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야 그게 도리천하고도 들이 아니요, 삼세하고도 들이 아니요, 우주 천지 삼세가 다 들 아니게 공 굴러지는데, 그렇지 않으니 공이 굴러지지를 않거든요. 하다 못해 밭에 초식을 심으려고 해도 굵은 들은 골라내고 호미로 김을 매고 심어야 제대로 먹는데, 하물며 일생을 공부해서 세세생생을 얻으라는 말씀을 소홀히 들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부터 만들어야 자꾸 거기다, 즉 말하자면 한 군데에다가 일거수 일투족 놓고 너만 할 수 있다고 관하고 나갈 때에 비로소 오색이 영롱한, 세상 천지를 뒤집는 색색 가지가 화해서 찰나찰나 돌아가는 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자불로 가면은 위 부처님으로 하나가 되고, 자로 내려오면은 법으로 하나가 되는 도리를 생생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서, 이거는 대신 누가 공부해 주는 법이 없어요. 자기만이 자기가 앉았는지 앉았는지 누웠는지 일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최선을 하다가도 오줌을 누다, 똥을 누다 그러면 선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지가 들 아니게 하나로 돌아간다는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참선도 들이 아닌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앉기만 하면 참선인 줄 알고, 서면 참선이 아닌 줄 알고, 또 일을 하면은 참선이 아닌 줄 알고, 누웠으면 참선이 아닌 줄 알거든요. 거 참 공부하기가 편리하고 좋다고 내가 말할 때 보면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내가 하다 못해 밥을 한 손가락 따서 먹든지 변소예를 가든지 뭐를 하든지 생명의 근본을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물질적인 모습은 정신적인 모습 없는 자기를 찾는 겁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들 아니게 만드는 요리죠. 그 요리를 못하면은 진짜 수행자도 못되거니와 부처님 도량에 통신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짜 진실로서 한발한발 밟는 도리를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서 들어올 때 한발한발 밟고 들어오지만 밟고 들어오는 그 밟자국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 가끔 해 드리오.

이 소리를 왜 하게 되느냐 하면 마산에서 어느 분이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시를 적었다고 하면서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가지고 온지가 꽤 됐는데도 불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밤에 좀 넘겨봤어요. 넘겨보니까 공치는 소리는 안 나고 공치는 소리를 그려 놓은 거예요. 우리가 공을 쳤으면 천 거는 결정이 나더라도 힘이 없이 결정을 해야 하고 힘이 없이 해야 하는 도리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이고 할 사이가 없죠. 말하고 할 사이도 없고 그리고 할 사이도 없고, 난 이렇게 한다 그럴 사도 없고, 한 찰나이기 때문이죠. 그 한 찰나에 활은, 옛날에도 천둥이 온 사방, 오방에서 천둥이 솟구치지만, 그게 법의 음성인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틈으로 그냥 말만 한다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이 쳐도 실천을 옮기지 않으면 허사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꼭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못하든지 하든지 자기 밟자국은 자기가 때 놓을 줄 알아야 하고, 자기가 돌아닌 줄 알아야 하고, 색색가지로 찰나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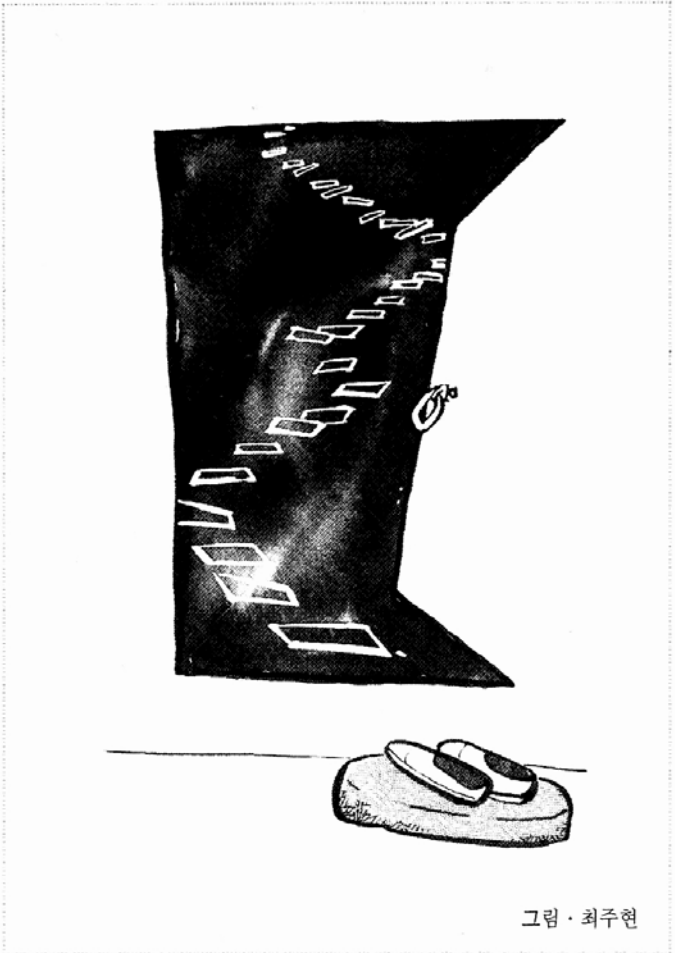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 내가 죽어야 나를 보는 법인데 내가 한다 내가 산다 생각하니 정신계에 들지 못하는 겁니다

화하는데 거기를 받아 들어서 해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답 세워놓은 데도 그래요. 그저 물라도 안되지만 뜻을 모르면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뜻을 알아야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하는 걸 알게 되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영령들이 되거나 말거나 샀으니까 팔았으니까 그냥 하겠다고 하는데 그저 한번 잘못하면 몇 대가 손해를 보는 거죠. 종자가 한 종 자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답 답해서요. 양자로 가고 뭐 하고 해서 위 조상들이 뒤바뀌어 가지고, 양자로 갔으니까 본가로 해야겠다 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때가 있어요. 냉정해야 하는데, 자손 살아도 활은, 옛날에도 천둥이 온 사방, 오방에서 천둥이 솟구치지만, 그게 법의 음성인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틈으로 그냥 말만 한다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이 쳐도 실천을 옮기지 않으면 허사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꼭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못하든지 하든지 자기 밟자국은 자기가 때 놓을 줄 알아야 하고, 자기가 돌아닌 줄 알아야 하고, 색색가지로 찰나찰나

이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몇 대 손을 잘못 살게 만드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내 분수껏 살다가 차원대로 나와도 고생들을 하는데 법원에서 말씀 한마디만 잘못했다 하면은 얼마나 치욕을 받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요.

#### 실천하지 않으면 허사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자기 지금 현재 모습은 공해서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모습은 공했으니까 안보이는 자기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대신 누가 살아주는 사람 없고 대신 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꼭 찾아야 하고 또 그놈이 동자도 됐다가 비구니도 됐다가 비구도 됐다가, 별의 별 다 바뀌어서 봤다 하더라도 급한 급한 대로 바뀌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도리를 똑바로 알아야 남한테 이익이 가고 나도 이익이 있죠. 왜냐? 그렇게 되면 속이 안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즐겁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요. 부처님께 시주하면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봤다든가 해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거저가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내 돈을 주니까 아주 없어진다고 생각 하시면

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번 한 생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세생생 내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가. 그래서 절대로 이 모습으로 남을 건지겠다고 나오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데 이 모습이 필요한 거지 정작 일 하는데는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내면에 공치기 운동 마당을 해 놓고 나면은 귀신 방귀 씨를 하나 얻는다. 얻으면은 그걸 또 먹어서 키우는 거죠. 키워서 뭘 하려고 그러느냐? 구석구석, 우주 천하 삼세 돌로 보지 않고 공을 치러나니까 꼭 해야겠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초상난 집에 들어가 때 관하고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관하는 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많죠. 당장 그런 집에 들어가면 아무 일 없어야 하니까, 물론 관할 수가 있는 거 아니니까? 자기 앞에 딱치면 딱치는 대로 요령이 생기는 거지 어떻게 남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훔쳐갈 건 없지만 관하고 나가서 하루 저녁 자고 들어왔는데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도 없고 관하지도 않고 나갔다 들어 왔는데 도둑이 들어서 훔쳐 갔다 들어 갔더라고요. 그걸 가르침이죠. 관 했을 때는 안 가져갔는데 관하지 않은 날은 왜 그렇게 가져가게 되었느냐. 가져 간 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이요. 안 가져가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하는 것이요.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스님을 법까지 그동안 저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시켜주는 저의 주인공 자리에 눈물로 감사드리면서 저의 소원을 여쭙겠습니다.

저는 기능성 소화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요. 제가 주장자 자리를 붙잡고 붙을 사기가 없는 그 질병과 업식을 녹이며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행회 회원들은 대부분 초심자들이어서 주인공 자리에 관하고 정진하면서 가는데도 때로는 입으로만 눈으로만 행하여지고 진짜 놓고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초심자들을 위해서 격려의 법문 청하합니다.

▲스님: 예전에는 한발 떼어놓는 법을 가르치려면 그냥 발만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모두 법문이 다 녹음되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만 한다면, 24시간 생활 속에서 하는 거니까, 내 몸이 송장인데 주인공 자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예너지를 가지고 나를 움죽거리게 하니까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을 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24시간 움죽거리고 자고 깨고 앉고 서고 일하는 거 모두가 참선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들 힘들어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할 게 하나도 없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큼 내면에 정말 호미로 공 마당을 만들려면 자꾸 거기다가 놓고 가야 그것

이 더불어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게으리 생각 마시고 몸은 앉았다 하더라도 마음은 게으르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몸은 비록 앉았으나 마음은 편다는 얘입니다. 지금은 뛰지 않으면 안되죠. 뛰지 못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송장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마음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스님 앞에 서면 눈물이 나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지만 주인공에 관하고 서게 되었습니다.

선원에 온 지는 4년 되었습니다. 저는 선원에 오기 전 마음을 잃고 방황하던 때 어느 보살이 법회가 있다 길래 그냥 오고 싶었습니다. 가서 보니 통영지원의 주지스님 법회였습니다. 주지스님의 말씀은 모두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선원에 오게 된 것이 연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선원에 와서 예뻐하며 선법가를 부를 때면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이 났습니다. 스님의 법문 중 아까 산 삶이 허무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너무 가슴이 메였습니다. 또 그러다 이게 정말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스님께서 내 육신 고기 덩어리를 믿지 말고 자기 주인공 믿으라 하시는 말씀에 법을 다르게 되었습니다. 또 지원의 두 분 스님의 인자하신 마음과 때로는 엄격하신 가르침 속에 한 발 두 발, 한 해 두 해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변하고 있었어요. 힘이 솟아 있었습다.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어떤 경계가 와도 두려움 없이 받아넘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솟았습니다.

#### 급하면 급한대로 대처

지난 겨울 예불하는 데 신경성이 없어 졌다는 생각이 저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마음의 병이 치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뿌리깊은 고목 나무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겠지요. 이렇게 좋은 법을 펼쳐주시어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질문이러기보다 요즘 들어 제 마음이 녹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마음에서 자꾸 올라오는 녹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제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애가 있는데 그 아이 가졌을 때 충격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태고가 중요한 걸 알지만 배속의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하며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원 스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올라오는 마음이 없길래 녹아졌나 했는데 그 아이가 나약하고 지주 아픈 걸 보면 저 때문에 아픈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 아이와 제가 어떤 마음을 내야 마음의 상처를 다 녹이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한가지는 저희 시댁의 종가집인 큰댁은 기독교입니다. 큰어머님이 살아 계시는 때까지만 제사를 모시고 큰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제사를 기독교식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사를 극진히 모시는 분이라 걱정을 하십니다. 저희가 모셔 올래도 시아버님님께서 안 주실 거고 만약 큰집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같은 날 집에서 제사를 모셔도 되는지 차후의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첫째 여러분께서 내 몸을 버리면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어요. 내 몸을 버리면... 버릴 수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조상 문제인데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을 믿든지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에시어준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